

# 미국 민주당, ‘공화당 텃밭’ 텍사스서 승리…트럼프 ‘위기’

주상원 보선서 민주 14%p 차 낙승…텍사스 연방하원 보선도 승리  
접경주 공화당 패배…이민 단속 충격 미국인 사망 사건 민심 반영

미국 공화당의 텃밭 선거구인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뉴욕시장, 베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승리 이후 지역 보궐선거에서도 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의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텍사스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메트가 공화당의 리 월즈캔스 후보를 상대로 14%포인트 차 낙승을 거뒀다.

텍사는 공화당이 주정부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레메트가 이긴 선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 차로 이겼을 정도로 안정적인 공화당 텃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월즈캔스 후보에 대해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성공한 기업가이자, 자신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매우 훌륭한 지지자”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후보가 크게 이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민주

당은 역사적인, 기대 이상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패한 월즈캔스 후보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승리는 지역 및 전국의 공화당원들에 대한 “경종”이라고 밝혔다.

특히 텍사는 멕시코와의 접경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어젠다인 고강도 불법 이민자 단속과 직결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예상치 않은 평가가 나온다.

이민 단속 요원의 충격에 의해 중북부 미네소타 주에서 미국인 2명이 지난달 사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이민 정책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같은 날 치러진 텍사스주 연방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다.

민주당이 텍사스주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하면서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가 약해지게 됐다.

18선거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메네피는 다른 민주당 후보인 어맨다 에드워즈를 상대로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18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실버스터 터너 전 하원 의원이 작년 3월에 숨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1



미 텍사스주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31일(현지시간) 휴스턴의 더 포스트 휴스턴에서 열린 개표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을 늘리면서 앞으로 공화당은 하원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의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총 435석인 하원은 현재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며 텍사스주 18선거구를 포함해 4석이 공석이다. 메네피 의원이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 의석 차가 5석에서 4석으로 줄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텍사스 주 선거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무관하다. 텍사는 지역 선거”라며 “나는 17%포인트 차로 이겼고, 이 사람은 졌다.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금값 12년 반 만에 최대 폭락…中 투기자금 이탈

지난달 30일 9.0% 급락…2013년 4월 이후 최대 은값 27.7% 폭락…소형 시장 특성에 변동성 확대

지난달 30일 기록한 국제 금값 폭락은 12년 반 만에 최대 하락률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 협회 종가는 트로이온스당 4894.23달러로, 전장 대비 9.0% 급락했다. 2013년 4월 15일(-9.1%) 이후 하루 최대 하락률이다. 당시 하락률은 1980년 2월 이후 33년 만의 최대 수준이었다.

금값은 2002년(280달러)부터 2011년 9월(1920.30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까지 절정적 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정점을 찍은 지 1년 6개월 만에 9.1% 폭락세로 1348달러까지 주저앉았다.

2013년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안전자산 인금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중국이 국제 기축통화를 놓고 달러화와 통화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소문 까지 나돌면서 금값을 천정부지로 밀어 올렸다.

그러나 그해 4월 15일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8%)를 크게 밑도는 7.7%로 발표되자 금값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중국 등 신흥

국들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서 이들 국가 중앙은행의 금 매수 가능성이 부정적으로 점쳐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정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금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금값을 끌어내리던 원인이었다.

이율리 이미 금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심리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3년 4월 1348달러까지 떨어진 금값은 2013년 말(1201달러), 2014년 말(1184달러), 2015년 말(1061달러)까지 저점은 계속 낮췄다.

그러다가 2024년(상승률 27%)과 2025년(64%)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폭락 전까지 25% 급등했다. 정중 5595달러까지 치솟았다.

2024년 이후 금 랠리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매입, 상장지수펀드로의 자금 유입,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잇따른 지정학적 긴장 등에 힘입었다.

### 국제금값추이



/연합뉴스

자료: 뉴욕상품거래소, 연합인포맥스

달러 규모의 금 시장보다 매우 작아 변동성이 그만 큼 크다.

은 혈물 가격은 지난달 30일 27.7% 급락했다.

이날 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최대 상장지수펀드인 ‘아이세어즈 실버 트러스트’ 거래 대금이 400억 달러를 넘었다. 전 세계에서 많이 거래된 ETF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은값은 15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올해에도 급등세를 이어왔다. 지난달 30일 폭락에도 1월 기준으로 여전히 17% 오른 수준이다.

/연합뉴스

### 일 자민당, 총선 압승 전망

#### 아사히신문, 중반 판세 분석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중의원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의석을 차지하는 등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별인 전화·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전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기 세이며 연립 일본유신회와 함께 전체 여당 의석이 300석 이상도 몇될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분석 결과 자민당은 292석 전후(278~306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거 공시 전 자민당의 의석은 198석이었다. 연립 일본유신회의 의석수는 32석 전후(25~38석)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중의원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인 301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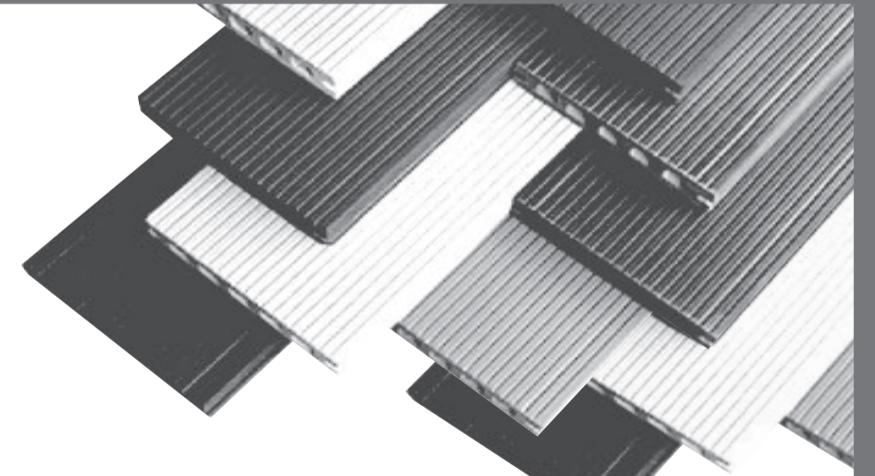
## 논슬립 디자인 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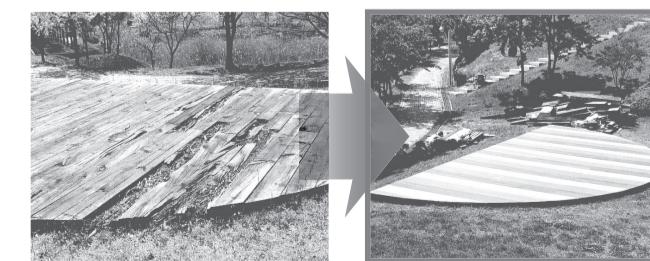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 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 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